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30분
오전 (2부) 7시30분
오전 (3부) 10시
오전 (4부) 12시
금요일예배 (1부) 1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Jesus Centered News

예수중심교회

2013년 10월 20일 (제712호)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30분
오전 (2부) 10시
오전 (3부) 12시
저녁예배 7시30분
수요일예배 (4부) 8시

인천 교회 032) 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철야 주일 예배 위치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칼럼

만남

인생은 만남이다. 사람 인(人)자는 막대기 두 개가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으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배필을 만드셔서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三位)로 계신다. 이렇듯 만남은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다.

송(宋)나라 때 여승진이란 사람이 새 집을 샀다. 누군가 집값을 물으니 일천 일만 금이라고 했다. 무슨 놈의 집이 그렇게 비싸냐고 하자, 1만 금으로는 집을 사고, 1천만 금으로는 이웃을 샀다고 말하고 있다.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말이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어떤 인물이 되는지 결정된다. 헬렌 켈러가 설리반을 만났기에, 장한나가 그리스슬라브 로스트로포비치를 만났기에 오늘의 그들이 있는 것이다. 어디 그 뿐인가!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만났기에, 알렉산더 대왕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만났기에, 처칠과 플레밍의 만남이 있었기에 그들이 인물이 될 수 있었다. 나오미와 룻의 만남, 모세와 여호수아의 만남,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 만남은 이렇듯 운명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

대인은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라 여기는 데, 당신은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인생에 있어 가장 좋은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만남이다. 예수를 만나면 죄인이 의인으로,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미련한 자가 지혜롭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며, 연약한 자가 강건해진다. 피리에 있던 자가 머리가 되고, 죽을 수밖에 없던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 이보다 귀한 만남이 또 어디 있을까? 예수를 만나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사55:6).

멈출 수 없는 사도행전의 역사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창조되었고, 에덴동산에서 전폭적인 사랑을 받았지만, 그 큰 사랑을 이해하지도 감당할 힘도 없었기에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웬만한 사랑 같으면 다시는 돌아보지도 않을 대형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죽음으로 내어주는 불같은 사랑으로 우리 인간과의 사랑을 완전히 복원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절대 사랑의 표현이다. 그리고 그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받아들이면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시겠다

되라'(행1:8)는 것이다. 네 가족과 이웃과 원수, 나아가 땅 끝까지 가서라도 그리스도의 복음, 곧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것이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 부름에 목숨을 다하여 헌신했다. 그 결과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되었고, 그 역사는 지금도 마침표 없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 교단이 창립초기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펼친 전도 집회나 새천년 이후 전 세계로 나가 지속하고 있는 선교역사는 바로 초대교회 때부터 진행되어온 사도행전의 연장선이라 할 것이다. 무지한

해 과테말라시티 및 알몰롱가(AI-molonga) 집회를 통해 이미 과테말라는 멕시코(Mexico) 다음으로 여러 번 방문한 나라이다. 지난 방문 때 과테말라 상공에서 바라본 과테말라의 가난한 실상에 큰 충격을 받으신 목사님은 공황 도착 일정으로 "이 나라를 살리러왔다."고 말씀하셨다. 어디 과테말라뿐이겠는가? 지구촌 곳곳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무지 속에 허덕이는 나라들이 많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 악한 마귀의 발이 된 백성들이 허다하다. 이는 다 가르치는 자들의 잘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된다! (지난 2007년 과테말라 말라카탄 집회 광경)

는 마지막 프리포즈까지 하셨다. 이제 그 하나님의 절절한 프리포즈에 응답해야 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 인간의 몫이다. Yes(예)라고 응답하면 신랑 예수의 신부로서 천국의 영원한 행복을 차지하겠지만, 무응답이나 No(아니오)라고 끝까지 외면한다면 일말의 긍휼조차 없는 지옥의 심판으로 영원한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끊임없이 문 밖에 서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고 계신다. 그 사랑에 문을 활짝 열고 답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이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하여 목숨을 내놓은 분이 없기 때문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다. 네 가족과 이웃과 원수, 나아가 땅 끝까지 가서라도 그리스도의 복음, 곧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것이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 부름에 목숨을 다하여 헌신했다. 그 결과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되었고, 그 역사는 지금도 마침표 없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 교단이 창립초기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펼친 전도 집회나 새천년 이후 전 세계로 나가 지속하고 있는 선교역사는 바로 초대교회 때부터 진행되어온 사도행전의 연장선이라 할 것이다. 무지한

혹자들은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 때 그 시절에 끝났다고 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히 13:8)의 말씀이 살아있는 오늘, 우리는 그런 무지한 자들의 미혹에 속아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내 가족과 내 이웃, 원수에게라도 땅 끝까지 달려가 전해야 한다(딤후 4:2).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바요,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다.

못이다. 성경 호세아서 말씀처럼, 제사장들이 지식, 곧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린 결과다(호4:6). 목사님은 지난 2000년 이후 지구촌 곳곳을 돌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리고, 악한 마귀에 속아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르쳐오셨다. 이번 방문에서도 목사님은 동일한 사역을 진행하실 것이다. 수도에서 산악지역을 2시간 달려야한다. 목사님과 일행의 안전, 그리고 성공적인 집회를 위해 모두가 일심으로 기도해준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만전의 기쁨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되리라 확신한다. 이번 과테말라 집회를 위해 모두가 합심으로 기도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Henry

henry8829@naver.com



이초석 목사 과테말라 집회

일시: 2013년 10월 15일(화) ~24일(목)

장소: 에스쿠인틀라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렘29:11~13)

뿌리가 썩은 나무에 물을 주지 말라

부모 마음 1/10만 알아도 효자라고 합니다. 그만큼 모른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떡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생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마7:9~11). 자식을 위해서라면 아까울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는 부모의 마음을 단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어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마7:11). 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신 것으로,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그러할 진대,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안 주시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더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라”(렘29:11).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고(요3:16),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셨으며, 한없는 복을 베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처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대로 살고 있습니까? 선뜻 ‘예’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 까닭을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 썩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안 돼’, ‘내 주제에’, ‘내 팔자에’, 이런 생각들이 나를 무능한 자로 만들고, 나를 운명론자로 만들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뿌리가 열렸습니다. 한계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나는 뛰어오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내가 많은 민중에게 꾸어줄까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는 신명기 28장 12~13절의 말씀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어느 노인이 산속에서 독수리 알을 가져다가 집 닭장 속에 함께 넣었습니다. 때가 되자 병아리가 부화되고, 그 속에서 독수리도 태어났습니다. 이 독수리는 닭이 얼마인 줄 알고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독수리 한 마리가 닭을 채 가지고 가는 것을 어린 독수리는 보게 됩니다. ‘나랑 똑같이 생긴



저것은 닭을 잡아 먹고 하늘을 차고 오르는데, 나는 왜 이 닭들과 놀고 있는 거지? 나는 누구일까? 나도 하늘을 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자 어린 독수리는 날개를 펴고 날아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날 수 없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닭들은 ‘너 미쳤니?’ 하고 야유했습니다. 어린 독수리는 ‘그래, 내 주제에 어떻게 하늘을 날아’ 하면서 날개를 접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또 나타나 하늘을 맴돌았습니다. 그 독수리는 어린 독수리를 향해 ‘넌 독수리야. 왜 거기서 그렇게 있는 거야? 넌 날 수 있어.’ 하고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독수리는 날개를 계속 펴먹었고, 결국 땅을 차고 창공으로 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닭장 속의 닭이 아니라 하늘을 훨훨 날 수 있는 독수리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는 당신을 계속 닭장 속의 닭으로 살게 하려고 태클을 걸지만, 태생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

든!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9:23). 그래서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결과를 낳습니다(렘6:19).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동차의 핸들과 같아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으면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꺾으면 자동차가 왼쪽으로 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당신의 생각에 따라 당신의 육체가, 당신의 미래가 방향을 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생각을 바꾸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패배의식을 성공의식으로, 회의적인 생각을 적극적인 생각으로

바꾸세요. 12년 동안 헬루증을 앓던 여인이 ‘이렇게 사는 것이 내 팔자야’ 하지 않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다’는 적극적인 생각으로 예수님께 다가갔기에 고침을 받았고, ‘이것이 내 한계야’ 하지 않고 ‘가나안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긍정적인 사고가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또한 중풍병자를 들 것에 들고 온 네명의 친구들이 사람이 많아 예수님 근처로 갈 수 없을 때, ‘이건 불가능해’라고 하지 않고, 지분을 풀는 창조적인 생각을 했기에 친구가 나뭇줄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생각을 바꿔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는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집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데다가 요즘처럼 물을 내리는 수세식이 아니라 푸세식으로, 변소 밑에는 쥐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변소에 사는 쥐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놀라서 후다닥 도망가기 바쁩니다. 어쩌다 밭을 내려다보면 온 몸에 오물을 뒤집어

쓴 쥐들이 잔뜩 겁에 질려서 조심스레 위를 올려다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쥐들은 다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광에 들어가 보니 거기에도 쥐들이 있는데, 이놈들은 변소에 있는 쥐랑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밭에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게 마

큰 생각은 큰 결과를 낳고 작은 생각은 작은 결과를 낳는다

치 밭고 같고, 토실토실한 것이 사람이 들어가도 그리 놀라는 기색도 없이 되레 당당하게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변소에서 사는 쥐들은 부모들이 ‘우리 팔자는 똥이나 받아먹고 사는 거야’라고 가르쳤기 때문이고, 광에 사는 쥐의 부모는 ‘벼룩 우리가 쥐로 태어났지만, 얼마든지 잘 사는 길이 있단다. 적극적으로 살 길을 찾자’고 가르친 까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살면 매순간 불가능이란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인간의 생각으로는 ‘술이 떨어졌으니 잔칫집 분위기도 엉망이 되겠구나’ 하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 전환하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고(요2), 예수님의 제자들은 광야에서 많은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다 먹일 수 있다는 생각하셨고, 먹이셨습니다(마14). 왜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사55:8~9).

여러분,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장독 뚜껑을 덮어놓으면 장독에 물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든 원해도 부정적인 생각과 팔자터림만 하고 있다면, 비가 흘러 하수구로 내려가는 격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이 바뀌면 미래가 바뀝니다. 할렐루야!

썩은 뿌리에 물을 주면 점점 더 썩을 뿐이다

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꿈과 이상을 죽이고, 도둑질해 가는 것입니다. 벼룩은 자기 몸의 100배 이상을 뛰는 놈입니다. 그런데 이 벼룩을 그릇에 넣고 위에다 종이를 덮어놓으면 처음에는 이것들이 뛰려고 난리를 치다가 나중에는 종이를 거두고 열어놓아도 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릇 안에서 사는 것이 팔자려니 하는 겁니다. 이 벼룩의 모습이 ‘그냥 이대로 살지 뭐’하고 주저앉아 있는 당신의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삶에 뚜껑이 덮여 있었었습니다. 그릇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삶의 한계가 분명 있었었습니다. 마귀란 놈이 우리의 삶을 차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를 진멸하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 (5,000원)

(060)700-0688

(060)700-0633

(060)700-0288

은행 계좌 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객원칼럼::

::비유열전::

변해야 삽니다

개풍, 동립산업, 화신, 금성방직, 동명목재 등을 들어보셨나요? 50여 년 전에 잘 나가던 기업이지만 현재는 거의 잊혀버린 이름들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1965년의 100대 기업 중 2005년도의 100대 기업으로 살아남은 기업은 8개에 불과합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혁신을 일상화하고, 조직의 긴장상태를 유지하며, 성장 발전하는 다른 우량기업을 벤치마킹하는 등 환골탈태를 통해 위기극복과 변신을 거듭한 기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성장발전 속도가 현격히 저하되고, 심지어 정지 또는 일부 퇴보하는 경향이 발견된다면, 개인이나 조직에 위기가 닥쳐온다는 징후이므로 적극적인 변화의 시도가 생존을 위해 필요합니다.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이 온다는 것을 역사적, 사회적 사례들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현재 바람 부는 대로, 시세에 따라 이리저리 요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는 바로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변화를 추구하면 좋을까요? 첫째,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에 새로운 것을 가미하여 잠깐의 것으로 만들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무리 좋은 반찬이라도 거듭하여 똑같이 올려놓으면 그 밥상은 실증나게 되어 물리게 되고 결국은 영양실조에 걸리게 됩니다. 몇 가지 기본 반찬은 그대로 두고 한두 가지만 새로운 반찬으로 가미되더라도 그 밥상은 참신하다고

간주될 것입니다. 둘째, 성공적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는 외부의 것을 벤치마킹하고 내부의 현 실태를 냉철하게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성장발전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개인은 자신에게 직간접적으로 인생에 도움이 되는 멘토(조언자)를 찾고, 자신의 능력과 현실을 바탕으로 미래의 뚜렷한 목표와 구체적 실행방안을 설정하여 이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조직은 최근 가장 성장발전이 뛰어난 다른 조직의 성장모델과 방법을 분석하고, 자기 조직의 장점과 단점을 냉철하게 점검하여 새로운 성장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셋째, 누군가가 올바른 충고를 했을 때 그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위대한 충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충고를 받아들이어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는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는 하인리히 법칙이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면밀히 살펴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는 등 혁신적인 변화를 추구해야만 실패를 방지하고 성공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12:2).

이관섭 장로

kwansup1029@hotmail.com

나를 구한 분은?

길을 가던 나그네가 누군가 질려대는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가 보니, 어떤 남자가 저수지 옆에 빠져 발버둥을 치고 있었다. 나그네는 앞 뒤 볼 겨를도 없이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그 남자를 끌어내는데 혼신을 다했고, 노력한 보람이 있어서 거의 숨이 넘어가는 그를 끌어내는데 성공하였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사형수로, 감옥을 탈출하여 도망하다가 그만 늪에 빠졌던 것이 아닌가! 나그네는 참으로 난감하였다. 나그네는 다음 날 그 나라의 왕자였기 때문이다. 왕은 왕자가 구한 사형수를 즉시 하옥하고 정해진 날에 참수할 것을 명했다. 왕자는 너무나 아쉬웠다. 비록 그가 사형수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자기가 목숨을 걸고 구해놓은 자가 허무하게 죽는 것이 아쉬웠다. 그래서 왕자는 왕께 그를 살려달라고 간청을 드렸다. “삼강마마, 매우 송구스러우나 저를 살려달라”는 통곡하여 주시옵소서. 그

는 비록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소자가 목숨을 걸고 혼신을 다해 구해낸 인물입니다. 그러니 저를 보셔서 그를 방면해주시길 간청 드리옵시다.” 왕자의 간청에 깊은 생각에 잠겼던 왕은 왕자의 모습을 지긋이 바라보더니 미소를 머금는다. “좋다. 세자가 그토록 간청하니 내 이번 한번만은 세자의 청을 들어주마. 그는 국법으로 다스려 참수형에 처해 마땅하지만 세자의 청을 받아도 사면하노라!”

나를 구한 분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죄로 죽어 마땅한 나를 자신의 목숨을 던져 구해내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러니 이제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겠는가! 나를 구하신 이를 위해 남은여생 그 은혜를 갚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 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영혼을 구하는 일이다. 영혼을 추수하려 세상으로 나가자.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예수중심편집실



::New York report::

기독교 문화의 부흥을 위하여

뉴욕이 세계 거의 모든 분야에 중심이라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경제, 문화, 예술의 중심지로서 뉴욕의 명성은 여전하다. 세계 최고의 패션쇼들과 요리학교, 음악대학도 뉴욕에 있다. 뮤지컬로 유명한 브로드웨이의 극장들이나 카네기홀, 링컨센터 등은 모든 예술가들의 꿈의 무대이다. 뉴욕에서 일어나는 일이 곧 세계로 뻗어나가고 세계의 시장 흐름을 이끌어나가기, 뉴욕은 그야말로 현대판 로마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영향력이 큰 뉴욕에서 전지되고 있는 '현대예술'의 한 단면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미국은 흑인 노예에 관한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현재까지도 인종차별이나 흑인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많은 흑인 예술가들은 미국 내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인종차별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알리기 위해 예술이라는 프레임을 사용한다. 현재 뉴욕대학교 그레이 아트 갤러리에서는 "Radical Presence(급진적인 현현)"라는 흑인 예술 퍼포먼스가 성황리에 전시되고 있다. 여기서 몇몇 예술가들은 나체로 엮드려서 천장에서 떨어지는 솜을 견딘다든지, 한 슈퍼마켓 앞에서

미친 듯이 몸을 뒹군다든지, 입에 레몬을 물고 있다가 허를 갈로 벤 뒤 나오는 피로 벽에 흔적을 남기는 등의 퍼포먼스를 통해 자신들의 존재를 과격하게 드러낸다. 이런 행위를 예술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는 차치하고, 이러한 충격적이고 불편한 행위를 통해 이들이 드러내고 싶은 것은 다름 아닌 '나'의 존재라고 생각된다. 역사 속에서, 또한 현대 사회에서 흑인으로서 살아가는 어려움을 묘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그토록 알리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퍼포먼스는 많은 현지 비평가들로부터 아름다운 찬사를 받고 있다.

내가 듣는 한 수업에서 교수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에 대한 창의적인 반응을 퍼포먼스로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다른 학생들과 각자의 아이디어들을 나누었는데 다들 얼마나 급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존재를, 육체를 펼쳐내 보일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의 생각은 다르다. 내가 이 전시를 보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괴로움이다. 나의 존재를 부정당하고 싶지 않아하는, 사람들

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욕구다.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욕구는 다른 사람에게, 또 자신에게까지 불편함과 괴로움을 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은 다르다. 나는 이번 퍼포먼스에서 우리 삶에서 처음과 끝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려고 한다.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크고 높으신 분의 임재하심을 알릴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다름 아닌 문화이다. 그리고 그 문화는 여기 뉴욕에서 창출되고 확대 재생산된다. 그러한 뉴욕에서 수많은 예술가들이 예술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분출해내고 싶어 한다. 우리는 훌륭한 기독교인 예술가들이 뉴욕으로 진출하여 보통의 예술가들이 인간을 드러내는 것보다 더욱 더 하나님의 존재를 폭발적으로 드러낼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기독교문화가 문화의 주류가 되어 사회 문화가 건전해짐과 동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예술이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김슬아

gratiaseul@gmail.com



귀를 기울이세요

일본의 작은 마을에 백은 선생이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청렴한 수장자였습니다. 그 이웃에는 예쁜 외동딸을 둔 두부 장수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의 배가 점점 불러 오는 것을 발견한 부부는 노발대발하며 아기 아빠가 누구인지 딸을 다그쳤습니다. 울기만 하던 딸은 백은이라는 두 글자를 더듬거렸고, 부부는 백은에게 달려가 한 바탕 난동을 부렸습니다. 노인은 그저 "일이 그렇게 되었군요."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이렇다 할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아이를 낳자 부부는 노인에게 아이를 보냈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백은 선생의 명성은 땅바닥에 떨어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돌을 던지고 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아랑곳없이 첫둥생을 다지며 아이를 정성껏 키웠습니다. 몇 년 뒤, 딸은 사실 아이의 아버지가 어시장에서 일하는 청년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딸의 고백을 들은 두부 장수 부부는 그 길로 노인을 찾아가 뺨배사죄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노인은 담담한 표정으로 아이를 돌려주면서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이 그렇게 되었군요."

사람의 길이는 그가 고난과 연단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살면서 받게 되는 크고 작은 자락을 가운데서, 나의 마음은 알은 개울처럼 요동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깊은 바다처럼 잠잠합니까?

신재성 전도사

blessedmc@naver.com

::성도간증::

하나님은 저를 태중에서 택하셨습니다

Q&A



약 30년 전, 5남매 중에 셋째 딸이 무병(巫病)을 앓았었는데, 처음에는 무슨 병인지를 몰랐습니다. 멀쩡하던 딸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심한 고열과 함께 갑자기 쓰러지더니 의식을 잃은 지 8일 만에 깨어났지만, 딸은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데나 침을 뱉고, 아무한테나 심한 욕설을 퍼붓는 등 아주 난폭해져버린 딸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영험하다는 무당을 찾아가서 귀판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귀을 하는 도중, 어린 딸이 한쪽에서 반대쪽으로 걸어가는데, 딸의 발이 땅에 닿지 않는 모습까지 직접 보게 되니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귀을 했는데도 신내림을 받지 않아서였는지, 딸의 상태는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가정에서는 늘 분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제 육체 또한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 있으나 죽은 것과도 같던 세월이 6년 정도 흘렀을 즈음, 저희 집에도 빛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 오셨습니다. 저희 마을에 초상집을 방문하셨던 서울의 어떤 목사님이, 사연을 듣고 저희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안마당, 대청마루, 안방 할 것 없이 귀신이 우글우글 대고 가쪽 몸속에도 들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보를 주면서 꼭 찾아오라고 했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서울 석촌동의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에 간 날, 그 목사님이 안수를 하자 성령이 임하여 혀가 꼬부라지면서 방언을 말하게 되었고, 제 속에 있던 귀신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당시 후두암, 간암, 자궁암, 그리고 병어린 저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고쳐주셨는데, 안수 받은 즉시 말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셋째 딸도 완전히 고쳐주셔서, 그 이후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것도 감사한데 더욱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초석 목사님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강화도 공설운동장에서 집회를 하신 목사님의 본교회가 인천 송의동에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근처에 갔더니 그 교회는 안 보이고 '한국예루살렘교회'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리다시피 옛 인천교회의 언덕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되었고, 대성전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초석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고 계셨는데, 찬양을 따라부르는 중에 '하늘문'이 열리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확신하며 그 때부터 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이초석 목사님으로부터 안수를 받고 나서 다리의 물혹이나 갑상선, 당뇨 병을 다 고침 받았습니다.

사실, 다리의 물혹은 생전의 남편으로 인해 생긴 상처였습니다. 남편은 예수 믿는다고 온갖 핍박을 가했는데, 성경찬송을 불태우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으며 심하게 구타를 했었고, 급기야는 손에 들고 있던 시퍼런 낚으로 저의 무릎을 찌어버리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약 20년 동안 핍박을 입었던 남편조차도 예수님의 사랑 앞에 변화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75세가 된 남편이 천식을 심하게 앓게 되면서 병원에 입원

시켰는데, 가망이 없다고 하면서 '장례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 포기하지 않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라는 해가 되자'는 목사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초석 목사님이 꼭 병실에 찾아와서 남편을 안수해주시길 것을 놓고 강화교구 박화평 목사님과 구역식구들까지도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초석 목사님이 직접 병원에 찾아와주셨고, 남편을 안수해주셨는데,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꿈인지 생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장례준비'가 웬 말, 남편은 퇴원을 했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며, 건강하게 신앙생활하시다가 3년 전 예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을 놓고 함께 기도해주신 목사님과 구역식구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지나고 보니 이 모든 것들이 저를 연단하셔서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님께서 '태중에 너를 택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제 생모가 저를 임신했을 때,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다고 외가식구들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결국 딸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었고, 이렇듯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부족한 죄인을 구하시고 만 가지 은혜와 사랑을 아낌없이 베푸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남은여생도 순종하며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려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초석 목사님과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두 손 모아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강화예수중심교회 구자량 권사
(글: 이창훈)

Q: 돌아가신 분을 화장(火葬)하는 것은 불교의 관행으로 알고 있는데, 기독교 장례에서 화장을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A: 성경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의 관습은 시신을 화장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은 중한 범죄자나(창38:24, 레20:14, 21:9) 영원히 소멸시켜 버리려는 원수들에게 치욕을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암2:1). 그러나 예외도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화장한 후에 에셀나무 밑에 묻혔습니다.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시체 처리 방법은 매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레아 야곱 등은 막벨라 굴에 매장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성도의 부활을 기다리며 매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시신의 화장에 대하여 급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한 곳은 없습니다. 영혼이 떠난 육체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기에 시신의 처리 방법 때문에 고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장례 문화도 초창기에는 화장을 기피하고 매장을 선호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전 국토가 묘지화 되고 산골 훼손이 극심하여 국가적인 문제가 되어버려서 매장할 묘지를 구하기도 힘들고 비용 문제도 발생되어 자연스럽게 화장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시신을 화장하는 것이 불교나 불신자들의 관행은 아니며 성경적으로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성도의 부활하는 몸은 매장된 몸과 같은 형태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멸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신령한 육체가기 때문에 화장을 해도 무방합니다.

::교단소식::

점검, 점검, 또 점검



해외집회 출발 전날도 내일 집회를 준비하시는 목사님

과테말라(Guatemala) 집회로 떠나야하는 바로 전날, 목사님의 사무실은 밤늦게까지도 불이 꺼질 줄 몰랐다. 갑자기 한국을 찾은 나이지리아(Nigeria)의 모세(Moses) 목사님과 해리(Harry) 목사, 파키스탄(Pakistan)에서 온 PCN TV 아쉬티아(Ashtia) 방송사장, 그리고 7년 넘게 예배 영어 통역을 담당하고 있는 박소영 자매, 외국인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장성철 전도사 등과 함께 아프리카 및 파키스탄 집회를 대비한 회의를 진행하고 계셨다.

몇 번을 사무실로 전화하며 목사님과 만남을 원했던 아쉬티아 사장은 주일날 직접 교회로 찾아와 목사님을 만났다.

그의 끈질긴 자세를 칭찬하시며 목사님은 그의 이름을 데이비드(David)로 바꿔주셨다. 그런데 예배 중에 보니 외국인에게 모세 목사의 모습이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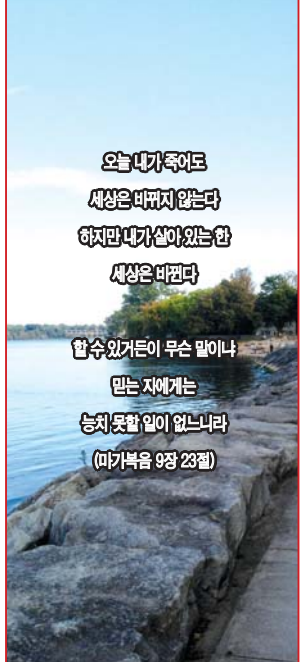
수차례 집회 요청을 해왔지만, 목사님의 계속되는 해외집회 스케줄로 불발에 그쳐왔다. 이에 그는 한국을 직접 찾은 것이다.

목사님은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먼저 통역관 점검에 들어가셨다. 기존의 영어 통역관들이 각자의 사정으로 모두 부재중인 상황에서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검증차원에서 반드시 거쳐야할 단계이기 때문이다. 목사님은 먼저 인터넷 VOD로 임훈 박사, 임윤석 사장, 박영애 집사, 신민호 목사 등, 기존 통역관들의 영상을 보여주신 후, 박소영 자매와 장성철 전도사를 직접 일으며 통역을 시키셨다. 그리고 모세를

비롯한 방문자들에게 질문하셨다. "나는 매사에 미리 점검하는 사람이다. 이제 여러 통역관들의 영어실력을 보았으니 가감 없이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6명의 통역관 중에 나와 함께 여러분의 나라로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가?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할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면 나와 대업을 논할 수 없다. 나는 좋은 사람을 원치 않는다. 나는 분명한 사람을 원한다."

모세 목사를 비롯한 방문자들은 목사님의 자세에 크게 깨닫는 모습이였다. 각자의 의견을 말하는데 그 모습이 매우 진지했다. 목사님은 회의를 마친 후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숙소 문제까지 모두 해결해주셨다.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완벽하게, 그리고 모두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마무리하시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오늘 내가 죽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세상은 바뀐다

합수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